

제1회 경산시립박물관 학술대회

경산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문화 전개양상

- 양지리유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2. 5. 20(금) 10:20

장 소 | 경산시립박물관 강당

주 최 | 경산시립박물관, 한국청동기학회

| 세부 일정

		사회 김은진 (경산시립박물관)
개회식	10:20~10:40	· 개회사 최영조 (경산시장) · 환영사 윤호필 (한국청동기학회장) · 축사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기조강연	10:40~11:10	·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 강연 이청규 (영남대학교)
제1발표	11:10~11:40	·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 발표 정인성 (영남대학교) / 토론 이창희 (부산대학교)
제2발표	11:40~12:10	·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문화 · 발표 이성주 (경북대학교) / 토론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12:10~13:30	· 점심식사
		사회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제3발표	13:30~14:00	· 경산 양지리유적 발굴성과 · 발표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 토론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제4발표	14:00~14:30	·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 발표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 토론 우병철 (영남문화재연구원)
제5발표	14:30~15:00	·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 · 발표 이양수 (국립청주박물관) / 토론 오광섭 (울산문화재연구원)
제6발표	15:00~15:30	·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 발표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 토론 허준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5:30~15:50	·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15:50~17:50	· 좌장 김권구 (계명대학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목 차

기조강연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 이청규 (영남대학교)	5
---------------------------------	---

주제발표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 정인성 (영남대학교)	29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문화 / 이성주 (경북대학교)	55
경산 양지리유적 발굴성과 /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73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93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 / 이양수 (국립청주박물관)	113
고대 옷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125

종합토론

이창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52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154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156
우병철 (영남문화재연구원)	158
오광섭 (울산문화재연구원)	161
허준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64

경산 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이청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목차 |

- I. 머리말
- II. 지역 범위와 단계 구분
- III. 조-전기의 마을과 사회
- IV. 중기의 마을과 사회
- V. 후기 이후의 마을과 사회
- VI. 맺음말

경산 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¹⁾

I. 머리말

경산 지역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의 고고학자료를 살피는 연구는 그 자체가 한국 고고학의 시공간적 최소 단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구집단의 사회와 문화를 밝히는 작업이다. 또한 다른 시대와 연계하여 동 하위 지역의 통시적인 사회 문화 변천과정(이희준 2004)은 물론 그 상위 지역인 금호강 유역, 영남 지역, 더 나아가 남한, 한반도-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설명하는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설정된 행정구역 자체를 단위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산은 1980년대에 행정제도 개편에 의한 것이고 중세 고려 조선, 고대 신라는 물론 그 이전의 소국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를 청동기시대의 당대에 의미 있는 단위지역이라고 전제하여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20세기 전반의 경산군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구에 속하는 울하천과 옥수천 유역을 포함한 범 경산 지역을 공간으로 하여 조사 확보된 주거와 무덤 자료를 근거로 동 사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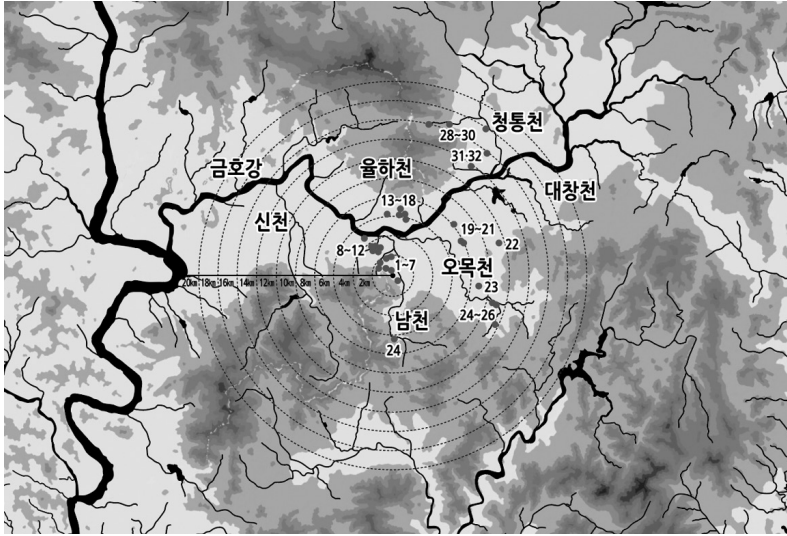
청동기시대는 1천년 남짓의 시간적 범위에 걸쳐 있으므로, 유구 유물의 형식과 공반관계를 통해서 몇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각기 다른 문화유형은 물론이고, 같은 문화유형에 대해서 동시성 또는 전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덤군과 주거군의 동시성과 그 시간적 폭에 대해 단정짓는데 어려움이 많아 구체적으로 당대 사회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산 지역을 단위로 하되 상위 영역의 시기구분과 변천 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주거군-마을-마을군 단위의 공동체 사회 구조, 개별무덤- 무덤군- 무덤 복합군 별로 문헌 구성원의 신분에 중점 둘 것이다.

II. 지역범위와 단계 구분

1. 지역 범위

금호강은 낙동강의 중류에서 합류하는 지류로서 116km 길이의 2차 하천이다. 동서로 완만하게 흐르는데 동쪽으로 포항 죽장면에서 발원하여, 상류의 영천, 하류의 대구를 거쳐 서쪽으로 달성군 지역에서 합류한다. 그러한 금호강의 중류 유역에 위치한 현재의 경산 지역은 경산시와 하양읍, 압량읍, 진량읍을 비롯하여 외촌면, 자인면,

1) 이 발표문은 "금호강 유역 초기사회의 형성"(이청규외 2015)에 게재된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변천'의 글 일부를 경산 지역에 맞추어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도 1〉 경산지역 청동기문화 주거유적 분포

확한 공간적 범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남산면, 남촌면, 용성면을 포괄한다. 이는 1981년 이후의 행정 단위로서 그 이전에는 지금의 대구시 수성구의 시지·매호동, 동구의 각산·신서동 지역이 경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1914년 이전에 하양과 자인은 별개의 현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750년에는 장산군, 그 이전 654년에 설치된 압량주는 물론, 그 이전 신라 병합 이전 소국 단계의 경산 지역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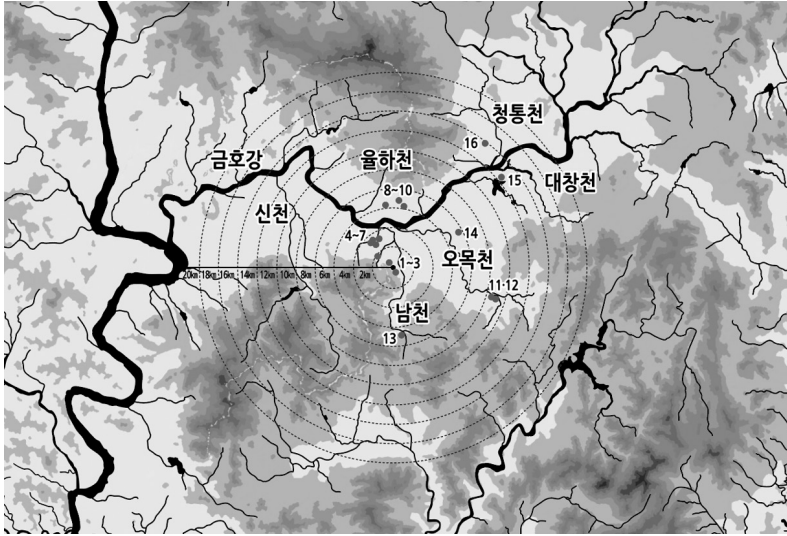
〈표 1〉 경산권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정상수·방선지 2018 수정 보완)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	경산 옥곡동	27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2	경산 옥산동300	44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3	경산 옥산동 677-7	4	세종문화재연구원(2020)
4	경산 옥산동29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8)
5	경산 옥수동	1	영남대박물관(2004)
6	경산 옥수동128	3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7	경산 중산동160-1	2	성림문화재연구원(2011)
8	대구 가천동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9	대구 시지동60-1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10	대구 시지동	3	영남대박물관(1999)
11	대구 사월동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6)
12	대구 시지지구	3	영남대박물관(1999)
13	대구 신서동	6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
14	대구 각산동(1)	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2)
15	대구 신서혁신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16	대구 각산동(2)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2)
17	대구 동내동	3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8	대구 괴전동	1	영남대박물관(2004)
19	진량 내리리	13	한빛문화재연구원(2011)
20	진량 선화리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6)
21	진량 가야리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2	진량 마곡리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3	자인 서부리451	4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24	남산 삼성리665	5	영남문화재연구원(2003)
25	남산 산양리	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26	남산 경리440-5	5	삼한문화재연구원(2012)
27	와촌 음양리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
28	와촌 신한리	2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7)
29	하양 동강리	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30	하양 대학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31	하양 양지리	4	성림문화재연구원(2020)

〈표 2〉 경사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유적분포(정상수·방선지 2018 수정보완)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	경산 옥수동 134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2	경산 옥산동 300	1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3	경산 옥곡동	10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4	대구 매호동 1008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9)
5	대구 매호동	15	영남대박물관(1999)
6	대구 시지동	21	영남대박물관(1999)
7	대구 신매동	1	영남대박물관(1999)
8	대구 신서혁신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9	대구 신서동	83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
10	대구 동내동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11	남산 산양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12	남산 경리 440-5	2	삼한문화재연구원(2012)
13	남산 삼성리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14	자인 갈지리	1	삼한문화재연구원(2016)
15	진량 가야리 376-1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16	진량 내리리	1	한빛문화재연구원(2011)
17	하양 대학리	6	동북아문화재연구원(2019)



〈지도 2〉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유적 분포

바다의 섬이나 산간 분지와 달리 경산 지역의 경우 하천과 산맥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이거나 가로막혀 있지 않아 경계가 뚜렷한 지리적 단위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의 경산권 공간을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마을을 중심으로 삼아, 이로부터 일정 거리 내 범위의 분포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금호강 북변에 위치한 대구 신서동에서는 지역내 최대 규모 무덤군, 그리고 최근에 하양읍 대학리에서 최대 묘역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성과를 볼 때 경산권에서 확인된 가장 큰 마을은 금호강 남변에 위치한 옥곡동에서 확인되었다. 현재의 경산시 중심은 물론, 경산권 최대의 고대 고총고분이 집중되어 있는 임당동 일대는 또한 금호강 남변이다. 따라서 선사-고대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금호강 남변에 위치한 남천 중하류의 옥곡동 일대의 마을 유적을 잠정적으로 중심 지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 중심지를 기점으로 반경 8km 이내의 범위에 서쪽으로 담티고개를 경계로 동쪽 옥수천 유역의 시지, 매희구역, 북쪽으로 울하천 유역의 각산, 신서 구역, 동쪽으로 오목천 유역의 자인, 진랑읍, 남쪽으로 남천 중상류 유역의 남천면이 포함된다. 고산(시지, 매희), 하양, 자인을 포함한 경산 권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주거유적 31개소 중에 22여개소, 무덤 유적은 전체 17개소중 10개소가 이 구역내에 있게 된다.

반경 8-12km 권역에 동쪽과 북쪽, 남쪽은 대체로 현재의 경산시권이지만, 서쪽의 경우 금호강 하류의 지류 신천 유역으로 별개의 대구 중심부 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신천 유역의 상동, 대봉동 등지에서 확인된 다수의 대규모 주거와 무덤 유적 군은 경산과 구별되는 별도 권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산 남산면, 자인면 내의 청동기시대 주거와 무덤 유적 6개소는 이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경 12-16km 구역은 동북쪽으로 와촌면 북부, 동쪽으로 자인면과 용성면,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천면을 포괄하게 된다. 이 구역의 경산시 행정권 내에서 조사된 사례는 소규모 주거지 유적 6개소가 있다. 비슷한 거리에 동쪽은 대구 남구 봉덕동, 서북쪽으로 서변동에 이르고 있어 경산권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산 중심지로부터 북쪽과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구역도 경산권에 포함되지만 의미 있는 청동기시대의 1차 경산문화권은 8km 거리 이내의 권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 1, 2의 주거, 무덤 유적 분포도에서 보듯이 8km 이내의 권역은 다시 4km 이내와 이외의 권역과 각각 달리 살필 수 있다. 18km 이외의 권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유적의 분포상으로 보아 경산문화권에서 벗어

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적의 분포상황을 살펴서 경산문화권을 몇 개의 하위지구권을 분류한 사례가 있는데, 안심지역의 북서군, 경산시 중심의 중서군, 남천면 중심의 남서군, 그리고 와촌면과 하양읍의 북동군, 진량읍과 자인면을 중심으로 한 중동군, 남산면을 중심으로 한 남동군 모두 6개군안이 그것이다(정상수·방선지 2018).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이는 근대 이후에 편제된 행정구역을 단일 문화권으로 전제로 한 구역 구분으로서 당대의 청동기시대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중 대체로 중서군은 4km 이내의 1차권역, 북서군, 남서군은 8km 이내의 2차권역, 중동군과 남동군은 12km 이내의 3차권역, 그리고 북동군은 16km 이내의 4차 권역에 해당된다. 어림잡아 걸어서 1차권역은 1시간, 2차권역은 2시간, 3차권역은 3시간, 4차권역은 4시간내에 있어 모두 하루 낮 동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있다. 그중 북서군과 북동군은 금호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거리와 교통상의 상황은 마을 상호간의 교류를 설명하는 조건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단계 구분

시기 혹은 단계구분을 하는 것은 사회, 기술, 경제, 종교 등 문화의 여러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제기된 시기구분안은 1)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역을 범위로 할 경우 전기, 후기의 2분기설(이청규외 2020), 2) 남한을 범위로 할 경우 조기, 전기, 중기, 후기의 4분기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안재호·이형원 2016). 3) 다시 그 하위지역을 범위로 할 경우 남한의 시기구분을 토대로 세분된 안이 제시된다. 영남 지역의 경우 조기 1단계, 전기 3단계, 중기 2단계, 후기 1단계설을 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하진호 2017).

이처럼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시기와 단계구분 체계가 다른 것은 대체로 유구유물갖춤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의 경우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청동기 갖춤새로서 그 제작 보급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이 되고 있다. 하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식이나 유형이 전개되는 토기 혹은 토기군을 동일한 잣대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의 남한 혹은 3)의 그 하위 지역에서는 1)의 요령지역과 비교할 때 제작 보급되는 그 기종과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청동기 자체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토기와 석기가 동반되는 주거군의 발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남한 지역에서는 이들 갖춤새를 지표로 삼은 시기 혹은 단계 구분

〈표 3〉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남한	중국동북지역 - 한반도	표지 유물
조기(BC 15-12세기)	전기	동검 이전
전기(BC 11-9세기)	후기	초기 비파형동검
중기(BC 8-7세기)		전형 비파형동검
후기(BC 6-4세기)		후기 비파형동검

안이 성행한다. 실제로 그 일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토기의 형식, 혹은 토기군의 유형이다. 대체로 이른 단계의 경우 토기의 구연부 장식에 중점을 두어 돌대문과 이중구연 토기의 조기,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문 토기를 전기, 늦은 단계의 경우 외반구연 항아리의 기형이나 횡점열문의 구연부 문양 토기를 중기, 그리고 원형점토편 구연부 토기를 후기로 삼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이형원 2009, 이수홍 2015)

그러나 이러한 토기의 속성 혹은 형식을 시간적 변천의 지표 이외에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각 형식별로 엄격한 시간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그 계통을 살펴 일정 인구 집단의 변화와 이동, 교류와 융합의 추세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다(황재훈 2014).

주거지의 형식은 조기에 1-2기 위석식 노지를 갖춘 장방형 주거, 전기에 2-5기의 위석식과 구덩이식 노지를 갖춘 세장방형과 장방형 주거, 중기에 노지가 없는 원형, 1기의 노지가 있는 방형 주거가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권구·공민규 2014). 한편으로 토기 형식의 조합과 절대연대 자료에 근거하여 조기의 주거형이 전기에, 전기의 주거형은 중기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주거지 형식 또한 일정 시기에 등장한 지표라기 보다는 집단 고유의 생활방식, 혹은 전통과 관련이 깊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남한 지역에서도 무덤은 물론 집자리에서 출토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청동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에서 그 기종과 형식에 따른 시기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검이 제작 보급되기 이전을 조기, 초기형 비파형동검의 전기, 전형 비파형동검의 중기, 변형 비파형동검의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안은 앞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체영역의 편년안과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표3에 보는 것처럼 전자의 조기는 후자의 전기, 전자의 전기, 중기, 후기는 후자의 후기에 대응된다.

현재까지 확보된 고고학 자료로서는 다소 무리한 시기구분안이지만, 비파형동검이 분포하는 전체의 상위 영역에 맞추어 하위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조-전기의 마을과 사회

남한의 여러 지역에서 조기에 속하는 돌대문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100 제곱미터를 넘는 대형의 장방형 평면에 위석식 노지 1-2기를 갖춘 것이 일반적이다. 금호강 유역의 몇 개소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중류의 경산 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지동에서 대형주거지에 딸릴만한 크기의 소형 집자리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경산 바로 남쪽의 청도의 신당리에서도 동 형식의 집자리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권승록 2014, 강지원 2017), 경산지역에서도 이 단계의 대형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이러한 주거 가옥내에는 그 면적으로 보아 다수의 세대 혹은 세대 공동체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가옥을 공동으로 건축하고, 여러 세대가 한 가옥에 거주하여 한 가구를 이루면서(김범철 2018), 단위 세대 혹은 가족 간에 사적공간이 유지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관행이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에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공동으로 식량을 취득 소비하고, 긴밀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10-2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기의 대형 주거지 10여기 이상이 북한강 유역의 춘천 중도에서는 각각 소형의 집자리와 셋트를 이루면서 마을을 이룬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박영구 2022). 그러나 경산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일정 지점에 2-3기 미만의 주거지가 단위마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전체의 인구가 많지 않은 데, 대형의 세대 공동체 주거 방식이 자리잡은 배경에는 유사시 외부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생산과 소비 방식의 일원화, 도구와 물자의 효율적 관리 등의 공동협업체제의 극대화 전략이 깔려 있음을 가정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중구연 단사선문의 가락동식토기는 전기전반, 그에 공렬장식이 추가된 혼암리식토기는 전기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김현식 2008). 가락동식 토기를 내는 집자리는 다시 2개의 화덕을 갖춘 장방형 평면의 둔산식과 3개 이상 6개의 화덕을 갖춘 용암식으로 발전한다. 혼암리식토기를 내는 집자리 또한 6-8기의 화덕을 갖추고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한 관산리식, 2-3기에 불과한 조동리식으로 구분된다(김권중 2020). 이들 형식의 집자리의 시기적 차이는 중서부지역에서는 분명하더라도, 금호강 유역으로 와서 다소 애매모호할 수 있다. 또한 두 형식의 토기를 내는 가옥 구조는 규모나 배치 상에 세부적 차이가 있지만 한 가옥 내의 거주 방식에서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화덕 1기로 둘러싼 공간마다 1세대의 구성원이 점유하였다고 전제하여 화덕이 3기 이상 갖춘 세장방형의 가옥에 대해서는 그 숫자만큼의 여러 세대가 기거한 가옥이라고 주장되고 있다(안재호 1996, 김승욱 2006). 그러나 1세대가 1기의 화덕 공간을 차지하였다는 설명을 확실하게 입증할 민족지적 자료나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1세대는 성인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일 수도 있지만, 동년배 동성그룹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앞선 조기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별개 화덕이 세대별로 마련되어 구분된 공간을 갖게 된 가옥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주거지에는 화덕 사이에 칸막이 시설을 하는데 쓰였던 기둥구멍이 가로로 조성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조기의 집자리가 면적은 넓으면서 가옥내부의 공간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세대별로 사적 공간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면 공동 주거생활을 한 점에서는 같으나 세대 혹은 가족 생활의 독립 소극적이거나 인정되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김권구 2021).

그러나 중부 지역에 널리 유행한 4기 이상 다수 노지의 다 세대 주택 가옥이 경산 지역을 포함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경산 옥산동 300번지에서 가장 긴 11호 주거지나, 옥곡동 2지구 29호 주거지도 3기의 화덕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선 단계의 세대별 공간이 뚜렷하지 않거나 공동주거 세대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주 방식이 지속된 셈이다. 많은 숫자의 화덕을 갖춘 세장방형의 관산리식 가옥은 경기 호서 지역에서는 대부분 산 구릉에 위치하고, 방향을 같이하면서 군집을 이루는 사례가 많은데(허의행 2014), 금호강 유역에서는 화덕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장방형 주거가 평탄한 충적대지나 완사면에 조성되고, 그 배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마을의 지리적 환경 이외에도, 단위 집단의 인구규모, 마을 조직의 운용방식 등 여러 부면에서 별도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하겠다.

금호강 유역의 마을 유적은 보통 가옥 3-5채가 단위 주거군으로 구성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한 단위 주거군이 하나의 세대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송만영 2013). 그러나 한 가옥에 이미 복수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므로, 이들 주거군은 다시 여러 세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단위 주거군이 하나 뿐인 앞서 조기의 사례와 달리 다수로 구성된 마을이 일반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위주거군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단위주거군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전기의 여러 단계에 걸쳐 100여채의 집자리가 확인된 마을 유적의 경우 일정 단계의 전체 주거지 숫자가 20-30기를 넘지 않으며 단위주거군은 3-5개 정도로 구성된 마을로 추정된다. 이러한 단위주거군이 다수인 마을이 경산지역에서는 남천유역의 옥곡동 유적에서 확인된다. 전기의 전체 주거 숫자가 30채 미만이고 일정 단계에 10채 미만인 옥산동, 신서동 등 다른 중위 마을에 비해 규모가 큰 상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지 면적당 인구수를 따져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인구는 대략 200-3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김권구 2005)

경산 지역을 포함한 금호강 유역에서 이러한 상위 마을 이상으로 이해되는 대규모의 최상위마을이 이 단계에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 따르면 남한 전지역에 걸쳐 살필 때 여러 시기 혹은 단계에 걸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한 지점에 전기에 속하는 집자리가 2백여채 이상 확인된 마을 유적으로 북한강 유역의 춘천 중도, 화천 용암리(김권중 2020), 그리고 남강유역의 진주 대평리 등의 유적이 있다(고민정 2020).

이들 유적의 집자리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초기에서 전기 말에 이르기까지 수백년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므로, 일정단계에 동시에 축조된 가옥의 숫자는 훨씬 작은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지역에서의 전기 전반 혹은 후기의 집자리 숫자는 앞서 대구 경산지역의 상위 촌락보다 그 규모가 2배가 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그 인구는 일정 시점에 400-500명 정도 이르는 최상위 취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조사의 성과로 보면 남한 최대규모의 청동기시대의 단위 마을은 금호강 유역은 물론 경산 문화권에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산 지역의 일정 규모 마을에 대해서 광장, 의례공간, 생산 공방 등의 구조와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으나(이홍중 1996),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고고학적 사실로만은 아직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기 단계의 무덤은 대체로 할석 혹은 판석으로 석관을 조립하고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상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것이다(윤호필 2021, 이성주외 2016, 윤형규 2017). 금호강 유역에서는 울하천 인근의 대구 신서동이나 진천 유역의 상동, 또는 신천 유역에서 소수의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대체로 세대공동체의 우두머리나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정형화된 무덤과 부장품을 마련하고, 관련된 의례를 치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 혹은 하위와 상위 마을의 촌장 간에 차별화된 위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무덤이 축조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집단 간의 무력적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발생하였음을 반영한 마제 석검과 석촉을 부장함으로써 무력적인 위세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배진성 2007, 히라고리 타츠야 2013).

IV. 중기의 마을과 사회

이 단계의 무문토기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단계의 골아가리와 공렬 장식의 속성이 부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문화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전 단계에 다세대 위주의 주거지가 조영된 전 단계와 달리 단세대 혹은 핵가족의 거주공간에 대응되는 축소된 주거지가 유행하였다(유병록 2015, 2019, 이종철 2016).

이에 해당하는 마을의 사례로 보면 금호강 하류인 진천 유역의 월성동, 동천유역의 서변동, 그리고 진천 유역의 대봉동 등의 사례가 있고(유지환 2012), 중류의 경산 옥산동에서는 방형 혹은 원형의 집자리가 수십채가 확인되었다. 대구 신서동에서도 20여채 이상의 원형 혹은 소형 집자리가 확인된바 있다.

이 단계에 경산 지역의 마을 유적에서 확인되는 집자리 숫자가 수십채를 넘는 경우가 없어 가옥 수는 오히려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시기의 가옥들이 다세대 주거용인 것을 감안하면 단위 마을당 그 인구 규모도 축소된 셈이 된다. 집자리 숫자가 10기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라도 수십 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시점에 단위마을의 인구가 백여 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남한에 중기 단계에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실제로 이처럼 전 단계에 비해 경산 지역 단위 마을의 인구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농경 등의 생업기술은 발달하여 생산되는 식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식량으로 일정 지점의 단위 마을을 이루며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단위마을은 규모를 축소시켜 너른 지역에 분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속하는 영남지역의 사례로서 전면적으로 발굴조사된 울산 동천이나 태화강 지류 척과천 유역의 경우를 보면 구릉의 완사면, 정상부 등을 가리지 않고 많은 단위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수홍 2015).

여러 연구자들은 단세대 주거의 유행은 집약적 농경방식과 관련되었다고 이해한다(김권구 2005). 경산 지역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 수전 유구가 제대로 확인된 바 없지만, 여러 하천 유역의 충적지에 마을이 들어서고, 기경구와 수확도구가 다종다양하게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약 농경은 전체 마을 수준에서 인력의 조직적 운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 이외에도 마을 전체 수준의 조직과 이를 관리해야 할 다른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마을 전체의 우두머리가 단수 혹은 다수의 세대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더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 단계에 금호강 하류와 중류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석묘 석관묘군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지석묘 석관묘군 중 그 규모가 큰 것으로 금호강 유역에서 진천변의 상동과 대봉동, 진천변의 대천동 유적과 경산권에서는 울하천의 신서동의 사례가 있다. 상동 지석묘 석관묘군 유적은 총 50여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는데, 군집상태와 배치방향을 고려하면 3-4개 하위군으로 구분이 된다. 대천동 지석묘 석관묘군은 60여기로서 앞서 두 무덤군과 마찬가지로 3-5개의 하위군으로 구분이 된다. 신서동 B 6 구역의 단위 지석묘 석관묘 무덤군 또한 40여기가 넘으며, 그 역시 4-6개의 하위군으로 세분할 수 있다(김광명 2017, 조미애 2016, 허정화 2013)

일정 지점의 대규모 지식묘 석관묘군은 단위 마을의 구성원들만 묻힌 무덤이 아닌 것은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단위 마을의 구성원들이 묻힌 무덤으로서 유적 내 여러 개로 구분되는 하위단위군은 각각 다른 단위 마을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규모 지식묘군에 다수의 하위군이 있어 각기 다른 마을 구성원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수 월내동 지식묘군이 있다. 동 유적에서 확인된 140여기의 지식묘는 군집상태와 방향으로 보아 7-8개의 하위군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군별로 20여기 내외의 지식묘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동북아시아지식묘연구소 2012).

한편으로 강 지류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지식묘군 유적이 조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성강 유역의 주암대 수몰지구 지식묘군의 유적이 있다. 대체로 2-4km 떨어져 작은 곡간마다 20-50여기의 지식묘군이 조사되었는데, 각 지식묘군별로 그 근접한 공간에 위치한 크고 작은 여러 단위 마을의 구성원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강동석 2021).

지식묘 혹은 석관묘에 모든 마을 구성원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묻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공동체의 장 혹은 단위마을의 촌장, 혹은 그들의 가족인지 여부를 단정할만한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일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식묘 축조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위마을은 물론 여러 마을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일정지위의 사람을 위한 무덤 축조와 그에 딸린 장송의례를 치룬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서 지식묘를 통해서 마을 구성원 중에 보다 상위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마을 혹은 단위 마을 간에 협력 체제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다. 앞서 제시한 금호강의 지류별 대규모 지식묘군을 통해서 일정한 지구별 내에 다수의 마을이 있고 어떤 일정한 마을의 우두머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취락간에 위계질서가 일정 수준으로 정립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덤을 축조할 때 활용되는 다수의 마을의 협력체제는 평상시 다른 부문에서도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든가, 상호 필요한 물자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또는 기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축제를 베푼다든가 하는 등이 그에 해당된다.

한편으로 각 단위 마을 별로 지식묘 혹은 석관묘가 축조된 사례도 있음은 여러 유적의 발굴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진천 유역의 월성동, 상인동, 진천동 등지에서는 수기의 지식묘 혹은 석관묘가 단위마을 주변에서 확인된 사례가 다수 있다. 대구의 신천 유역이나 팔거천에서도 그러하고, 경산지역의 남천의 옥곡동, 옥산동, 옥수천의 대구 시지동 등지에서도 10여기 미만의 지식묘, 석관묘가 다수 조성된 예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단위취락의 구성원이 반드시 일정한 대규모 지식묘군에 묻힌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구축한 개별 무덤군에 묻힌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단계에 규모가 크고 작은 마을간에 일정 부문에서 위계적인 관계가 정립되었지만, 모든 마을이 대단위 공동체의 조정하에 일사분란하게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각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식묘, 석관묘군의 하위단위 또는 개별 마을별로 조성된 소규모 지식묘, 석관묘군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 다수이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단위집단의 인구규모가 크다는 것

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집단의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집자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정 시점의 인구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신 개척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거점 혹은 중심 마을이라 함은 여러 마을 중에서도 수공업 제품의 생산, 종교적 의례나 혹은 경제적 교역, 정치적 집회 등의 다양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을 일컫는 것이지만, 경산 지역의 청동기시대 마을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무덤군의 규모나 주거지 숫자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 거점 혹은 중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마을이라기 보다는 장기간 존속한 마을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한 마을이 조성된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이룩한 조직 자체가 갖는 원동력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을이 갖는 절대적인 환경과 관계적 위치가 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농경, 수렵과 어로, 그 외에 식량 획득의 유리함, 생활에 필요한 음용수 공급 등과 함께 근거리 이웃 집단과의 교역에 유리한 교통상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금호강 남변 남천의 중하류 지역에 위치한 옥산동, 옥곡동의 마을 유적,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금호강 북변의 신서동의 마을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단계에 금호강 유역에는 같은 경북 지역의 청도 예전동, 김천 송죽리 등 다른 권역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나 천하석제 옥제품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청동기나 옥을 생산하는 수공업 기반(고민정 2020)을 갖추거나 동 위세품의 유통 교역망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V. 후기 이후의 마을과 사회

이 단계에는 남한 전역에서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유구유물갓춤새가 두루 발견된다. 동일한 형식의 토기가 중국 요령지역에서도 확인되어 동 지역에서 남하한 외래 문화라고 이해되고 있다(박진일 2013). 경산의 조영동, 대학리 유적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산권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생활 유적이 확인된 바 있지만, 마을 유적 자체는 물론 단위 마을에 속하는 주거지의 숫자가 전 단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산 지역 또는 금호강 유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한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고고학적 사실이 주목된다. 우선 하나는 동 토기가 출토하는 주거 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금호강 유역에서는 드물지만 경기 양주 수석동, 안성 반제리, 충남 보령 교성리 등의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중기 마을과 격절된 위치에 이주 마을이 조성되었다는 설명이 많다.

다른 하나는 추정할 수 있는 마을 유적과 해당 인구의 추정 숫자가 적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점토대토기를 내는 무덤의 경우도 남한 전체는 물론 경산 지역에 드물게 확인된다. 경산 대학리에 다음에 볼 거대한 묘역

혹은 구획 지식묘에 근접하여 확인된 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점토대토기 출토 유구중에서 경산 소월리, 대학리를 비롯하여 영남의 여러 곳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는 폐기 유구가 주목된다. 이 유구에 대해서 제사 활동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비록 인근 지점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인구 집단이 거주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추정되는 취락의 규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우선 검토될 것은 기존 편년안의 문제이다. 현재 통용되는 편년안을 따른다면 종전 형식의 무문토기와 석기가 출토되는 지식묘와 주거지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머물고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에 거의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정 토기 형식의 전통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여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통용되는 안으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편년안은 그 토기 형식이 크게 변성하는 단계는 가림할 수 있지만 그 명백이 이어지는 말기 혹은 쇠퇴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식묘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속하고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에 거의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편년안의 대부분은 토기의 형식을 표지로 한 것이고, 그 절대연대는 또한 일정 토기가 출토되는 집자리의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식묘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심발형 조질토기의 출토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만 부장용 토기로서 적색마연단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금호강유역의 무문토기와 집자리, 그리고 무덤 등 상당수가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까지 내려와 이 시기의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성주 2017)

사정이 이러할 때 옥곡동 중심마을에서 다소 먼거리인 10km 정도 떨어진 경산 대학리에서 발굴된 거대한 묘역 혹은 구획공간을 갖춘 지식묘 유적이 주목된다. 잔존 길이 34m로 전체 추정 길이가 40m 정도 되는 석축 기단의 내부에 1기의 석관묘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앞선 지식묘 축조 전통의 확대 발전한 것으로 묘역의 규모로 보아 문헌 사람의 권위를 과시하되, 그 구성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이른바 공동체 지향적인 권위를 갖춘 족장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 부장묘는 물론 남한 서부의 세형동검 부장묘에서 보는 것처럼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어 경제, 기술, 종교 등의 여러 부문에서 발전한 개인적인 권력의 소지자임을 과시하는 군장 무덤의 사례와는 대조가 된다.(이청규 2016) 점토대 토기를 표지로 한 호서 지역의 최상위 피장자의 적석목관묘에서는 무기, 공구, 의기 등의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다. 그러나 금호강 유역을 비롯한 경산 임당동에서는 대전 괴정동 무덤에 부장된 동탁과 세형동검이 출토된 바 있지만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동 단계의 군장 무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구획식 지식묘가 축조된 이후, 그 인근에 조성된 대학리의 점토대토기 무덤은 청동기시대 후기말 초기철기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장된 유물에 청동기가 전무하다. 최근에 같은 금호강 상류 인근의 경주 전촌리에서 묘역식 지식묘와 유사한 규모를 갖춘 적석 구획식 시설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경산지역에서는 지식묘 전통의 공동체 제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이동희 2021)

Ⅵ. 맺음말 : 청동기시대의 경산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영남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대 사회발전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는 대체로 두가지 관점을 토대로 한다. 그중 하나는 고대사학의 연구자들이 접근하는 틀로서 3세기 삼국지 위지 동이전 기록에 보이는 국과 읍락 등을 살펴 이에 맞추어 설명하는 관점이다. 그러한 설명의 틀을 서기전 1천년기로 소급하여 마을 유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은 다수 읍락으로 구성되고 읍락은 중심마을 또는 대촌이며, 그 아래에 소촌이 있다고 설명한다.(이희준 2000, 이청규 2019)

또 다른 하나는 서구 고고학자들이 제시한 신진화론의 관점이다(김경택 2004, 강봉원 2008) 그것은 주로 chiefdoms에 중점두는 것으로 대체로 지석묘와 청동기부장묘 등의 무덤 유적을 대상으로 삼는다. 지석묘의 축조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근거로 공동체 지향의 족장사회를 설명하거나(최몽룡 1990), 청동기 부장품의 위세적 특징을 토대로 개인 권력 지향의 군장 사회를 제안하는 것이다(김정배 1985). 1980년대부터 드물게 양자의 관점을 맞추어 설명한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거와 무덤자료를 어떻게 대응시켜 일정지역의 사회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취락자료는 실제 생활에서 전개되는 사회의 부면을 반영하지만, 무덤자료는 이데올로기 혹은 사후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주거지는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지만, 단위무덤은 개인의 위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거 마을은 일정집단의 인구규모와 조직을 간접적이거나 반영하지만, 무덤군은 죽은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여 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경산권에서의 사회적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기전 13-12세기 경 청동기시대 초기에 처음 최소 규모의 마을이 등장한다.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대형 주거지가 2-3기 썩 갖추어진 소촌으로 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마을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서기전 11-9세기의 전기에 이르면 가옥 내에 화덕과 칸막이 시설이 있어 세대별 사적 공간이 독립되는 거주방식이 남한 중부 호서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경산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3기 이하의 화덕 시설을 갖춘 세대공동체 가옥이 주로 확인된다. 3-5기의 단위 주거군 다수가 조합하여 200여명의 인구를 갖춘 상위 마을이 경산 지역에 등장하는데, 대체로 금호강 하류의 대구 대봉동과 상동, 월성동 등지와 함께 경산 지역에서는 옥산동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마을의 지도자를 정형화된 무덤에 묻는 장송의례가 행하지만, 그 규모나 숫자는 많지 않다.

서기전 8-4세기의 청동기시대 중기와 후기에는 한 세대가 한 가옥에 거주하는 소형 주거지가 유행한다. 단위 세대공동체보다는 보다 조직적인 공동협업을 뒷받침하는 단위 마을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 강조가 되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의 주거군 다수로 구성된 마을이 경산 지역에 등장하는 사실이 경산 옥곡동, 신서동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마을의 규모가 앞선 단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 규모는 늘어나지 않은 단위 마을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슷한 사례는 인근 울산 태화강이나 동천 유역의 발굴 사례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수십여기의 지석묘가 조성된 대형 무덤이 금호강 하류의 대구 대천동, 상동과 함께 경산 문화권에 속하는 대구 신서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여러 마을의 실력자를 공동으로 묻힌 공동묘지로서 이 지역에 족장사회

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상응하는 마을 유적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큰 마을 주변에 작은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위계적 구조가 초보적이거나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분명하게 편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금호강 유역의 지식묘사회가 청동기시대 후기 이후 서기전 4세기대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산 대학리 대규모 묘역 지식묘 유적이다. 그것은 지도자의 개인적인 권위가 강화되었지만 호서지역에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국> 혹은 군장사회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과 대조가 되는 <읍락> 수준의 족장사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청규 2016, 2019).

참고문헌

〈경산 지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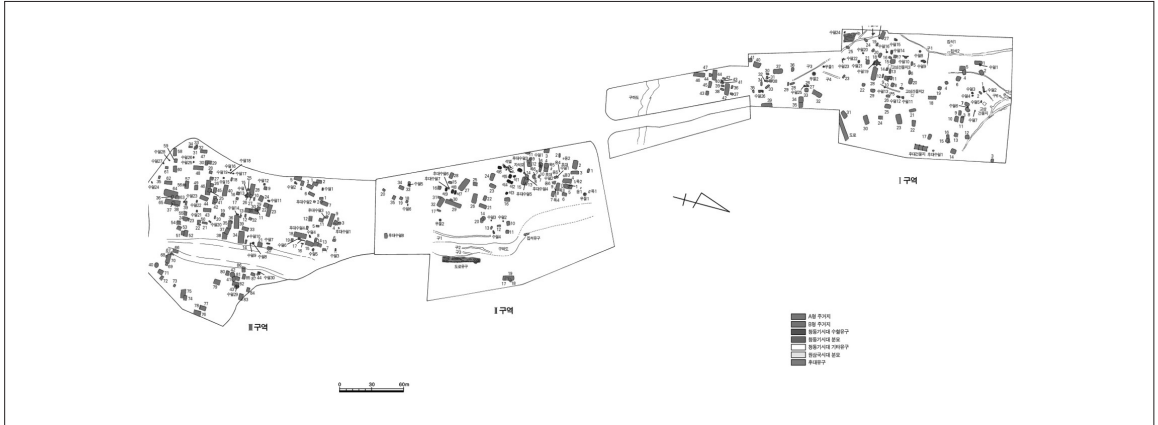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하양 대학리 와촌 동강리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경산 신항리 취락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경산 산양리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대구 신서혁신도시 B-3 복구역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대구 각산동 유적”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대학리 교리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경산 경리 440-5번지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경산 가야리 376-1번지 유적”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중산동 160-1번지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6, “청도 갈지리지석묘 유적, 경산갈지리지고분군”
-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산 옥산동 677-7번지 유적”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시지의 문화 유적 I”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대구 괴전동 유적”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대구 옥수동 생활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동내동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경산 삼성리 665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가천동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옥수동 128번지 생활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옥수동 134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경산 가야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경산 마곡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구간내 경산 삼성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대구 사월동 400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대구 매호동 1008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서부리 451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옥산동 300번지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경산 옥산동 29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경산 옥곡동 유적 (I~IV)”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대구 신서동 유적 (I~V)”
- 한국문화재재단 2016,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 대구 경북 (2014) VIII”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내리리 유적”

〈기타 논문과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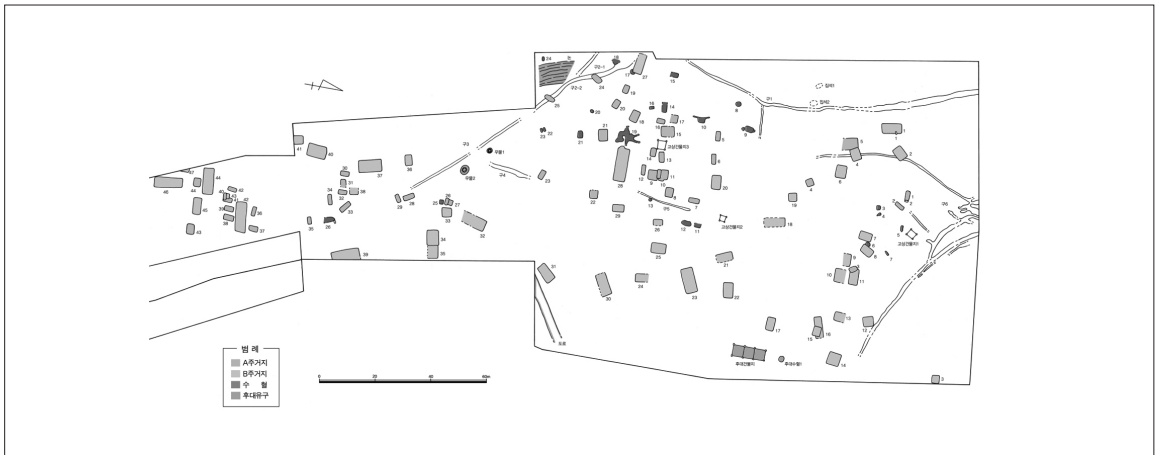
- 강봉원 2008, “한국고고학의 일방향”, 학연문화사.
- 강동석 2021, ‘섬진강 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발표요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강지원 2017, ‘밀양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청도지역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 고민정 202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승록 2014, "밀양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택 2004, '한국 복합사회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한국상고사학보" 44, 한국상고사학회
- 김광명 2015, '청동기시대 묘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12,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편,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21,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의 취락구조', "영남고고학" 90, 영남고고학회
- 김권구 · 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취락", 서경문화사
- 김권중 2020,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권중 2022,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상길 교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김범철 2018, '가옥 가옥 가구-청동기시대 사회변화에 대한 가구고고학의 이해', 충북대학교출판부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김정배 1985,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영남고고학" 44, 영남고고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편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Ⅰ)-선 · 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Ⅲ)"
- 박영구 2022, '춘천 중도동유적 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와 취락 양상', "호서 고고학" 51, 호서고고학회
-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문화사
-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 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안재호 1996,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석오 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안재호 · 이형원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 서경문화사
- 우명하 2017,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영남고고학" 75, 영남고고학회
- 유병록 2015,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재연구원
-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환 2012, '대구 진천천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8,
- 윤형규 2017, "대구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규, 2017,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의 전개', "대구 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 윤호필 2017,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축조배경과 상징성', "한국청동기학보" 21,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 2021, '영남지역 지석묘의 기원과 출현', "영남의 지석묘 사회-가야 선주민의 무덤", 국립김해박물관
- 이동희 2021, '고대산만 지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영남의 지석묘사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학술제전 발표요지, 국립김해박물관
- 이성주 2017, '지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 "대구경북의 지석묘문화", 영남문화재연구 30, 영남문화재 연구원
- 이성주외 2016,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 학연문화사
- 이수홍 2015,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연구", 함춘원
- 이수홍 2021, '영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영남의 지석묘사회", 국립김해박물관
- 이영문 · 윤호필 2017, "청동기시대의 고고학(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진인진
- 이흥종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이종욱 1999, "한국초기국가 발전론", 새문사
- 이청규 2016, '청동기 보급의 주체와 지석묘 축조 집단', "백산학보" 106, 백산학회
- 이청규 2018, '금호강 유역 (국)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시론', "금호강과 길", 국립대구박물관
- 이청규 2015,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적 변천', "금호강 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 학연문화사
-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회 2019년 학술대회 발표집, 영남고고학회
- 이청규 · 손준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도구론", 서경문화사

이희준 2000, '대구 지역의 형성과 고대 정치체의 변천', "영남고고학" 26, 영남고고학회
 이희준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정상수·방선지 2018,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의 변화', "영남학" 6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조미애 2016,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배치양상',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최몽룡 1990, '호남지방의 지석묘 사회', "한국고고학보" 25, 한국고고학회
 하진호, 2015, '청동기시대 촌락의 형성과 발전',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 학연문화사
 하진호, 2017, '금호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통시적 접근', "대구 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허의행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연구(I)",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3, 서경문화사
 허정화 2013, "대구지역 지석묘사회 연구",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황재훈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히라고리 타츠야 2013,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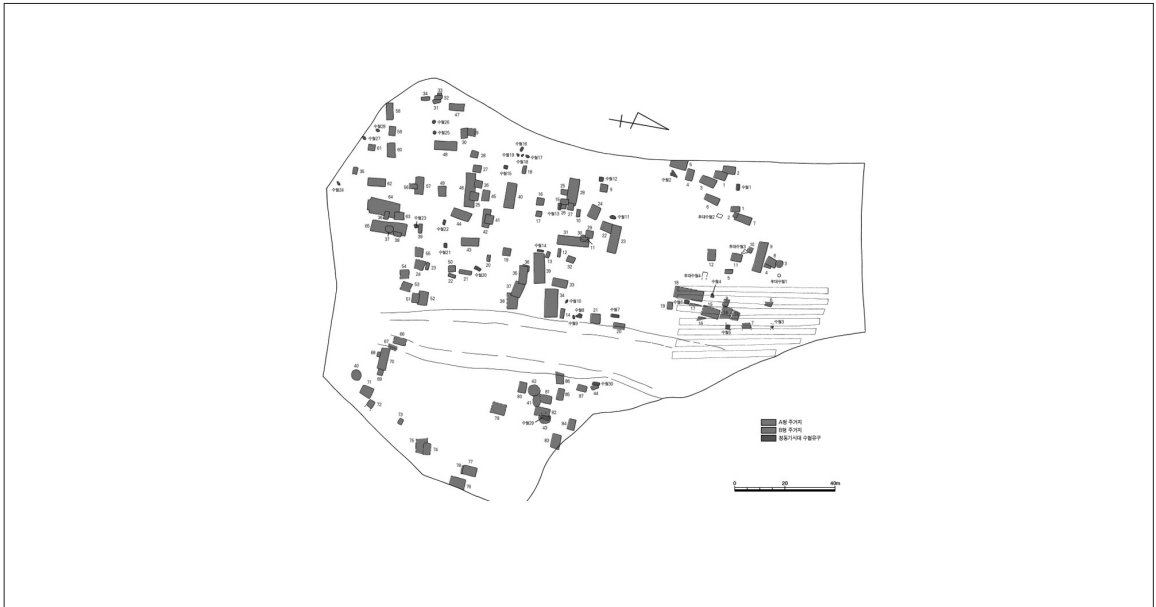
〈그림 1〉 경산 옥곡동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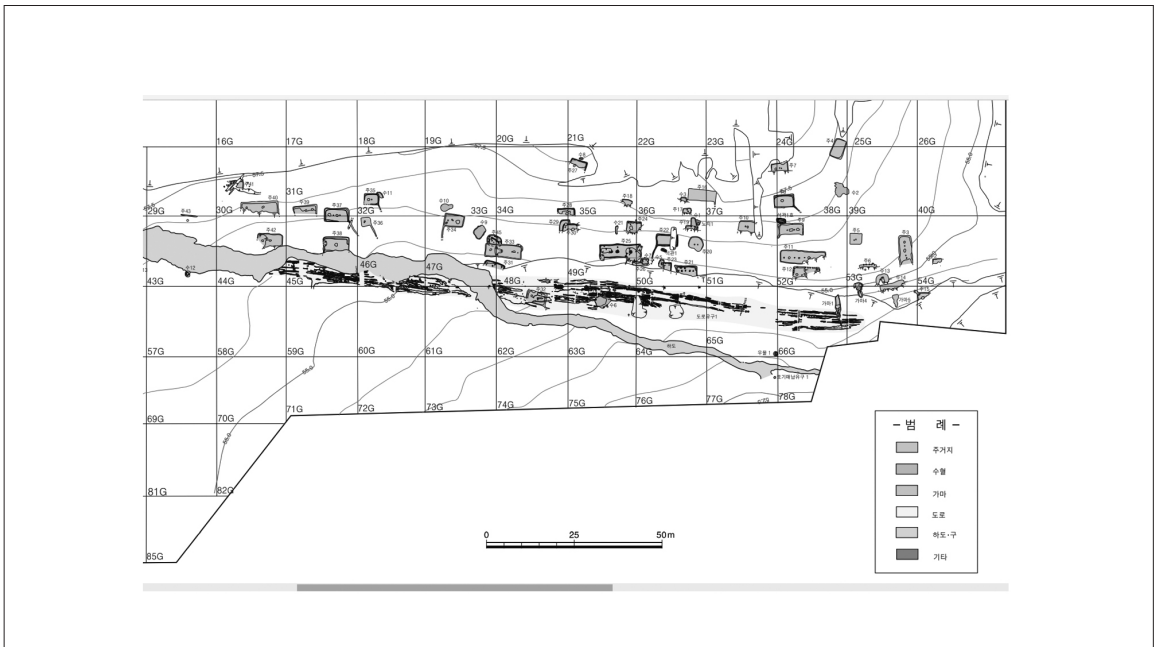
〈그림 2〉 경산 옥곡동 1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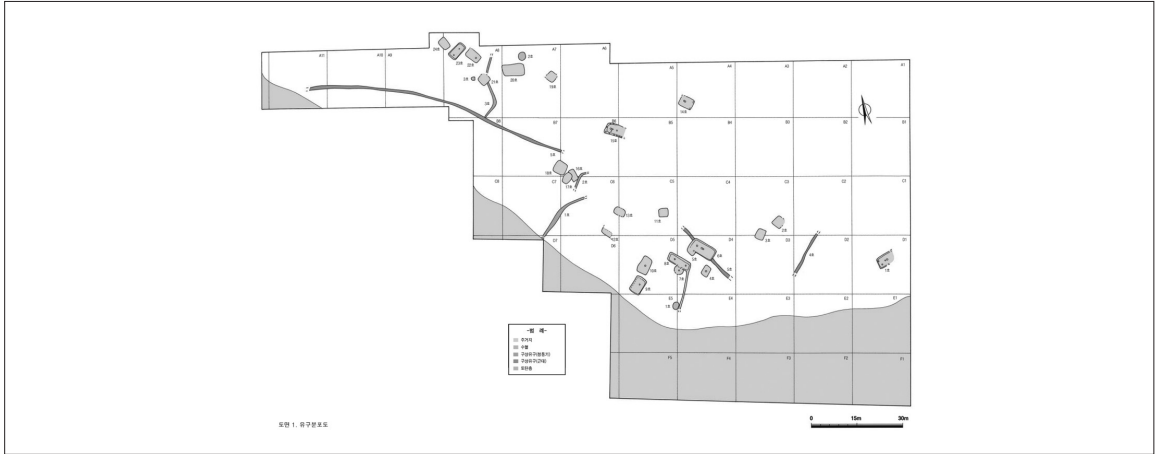
〈그림 3〉 경산 옥곡동 2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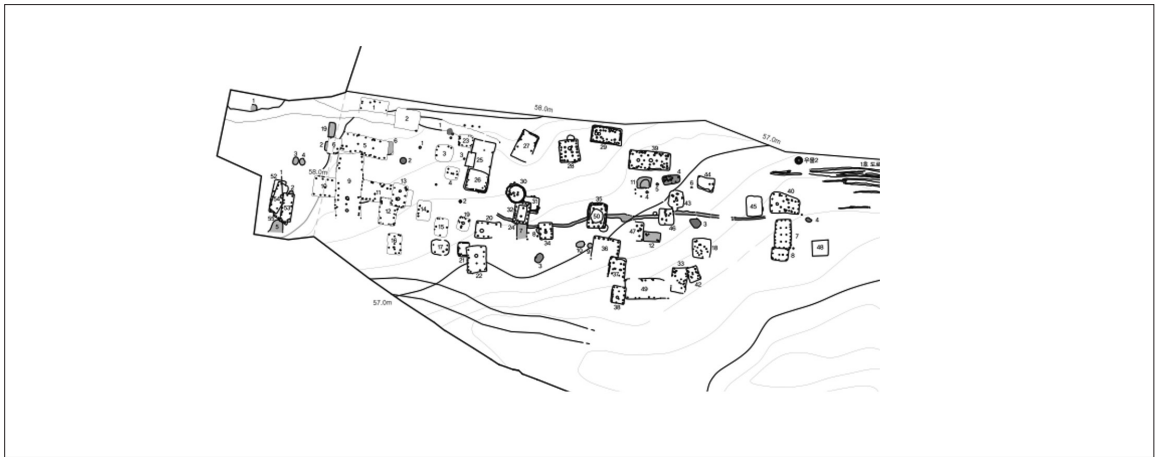
〈그림 4〉 경산 옥곡동 3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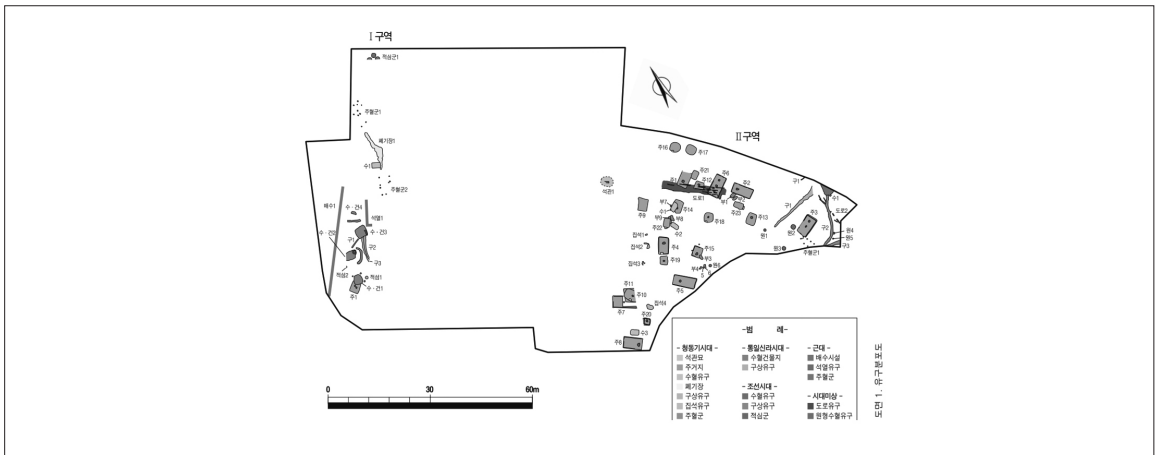
〈그림 5〉 경산 옥산동 300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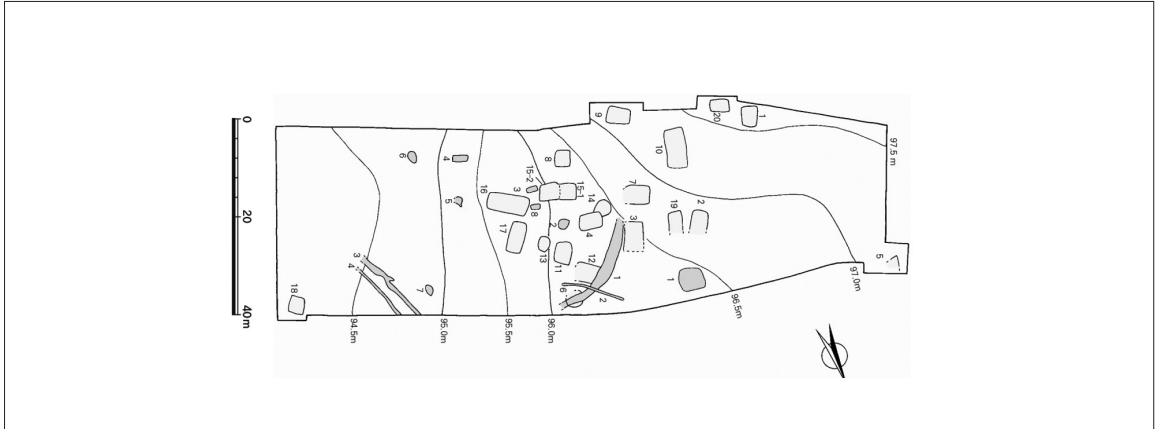
<그림 6> 대구 각산동 주거유적



<그림 7> 신서동 B-6구역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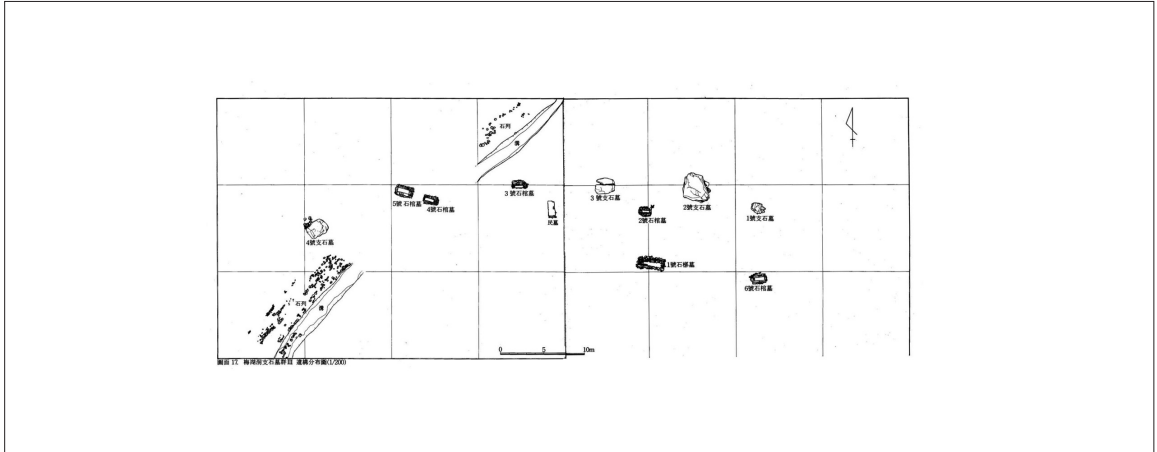
<그림 8> 남산 산양리 주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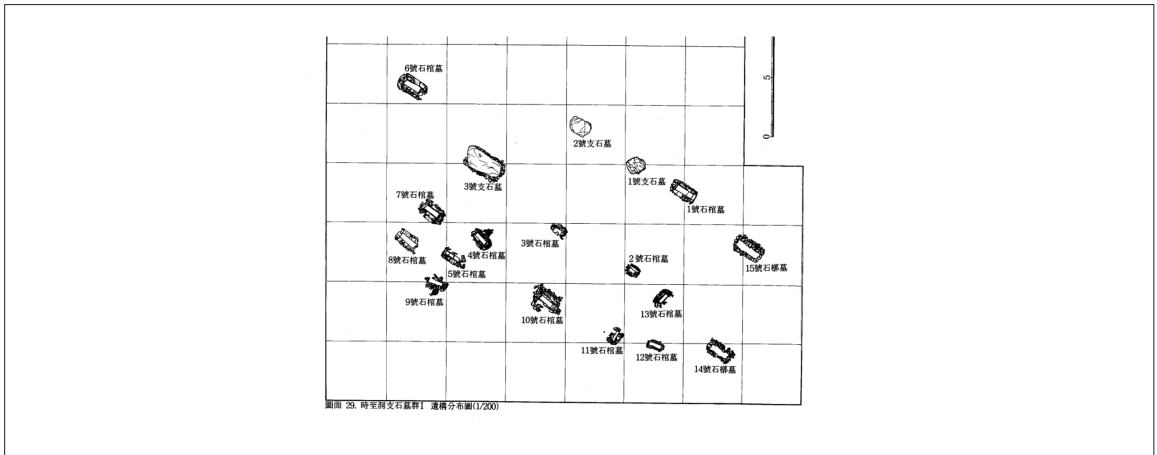
〈그림 9〉 와촌 신한리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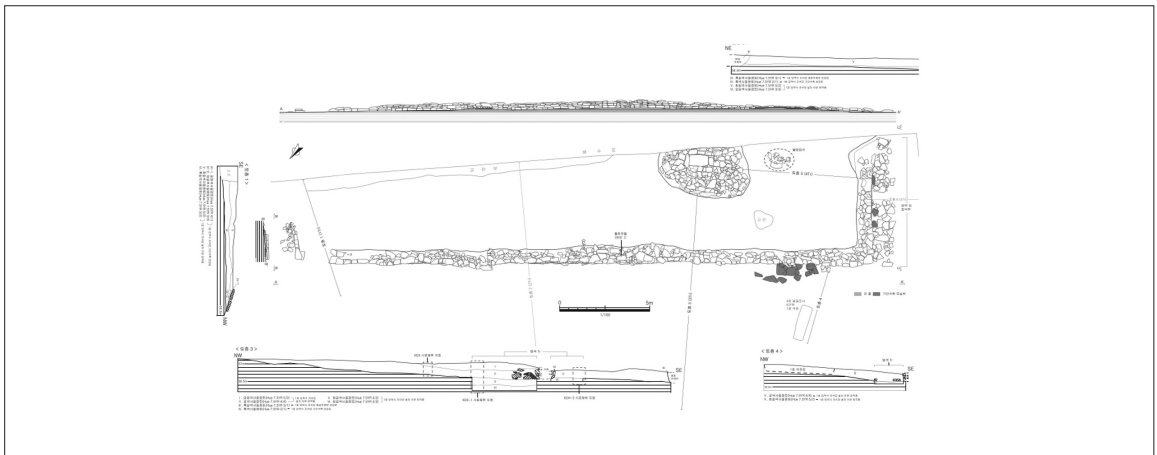
〈그림 10〉 신서동 B-1구역 지석묘군 유적



〈그림 11〉 매호동 3지구 지석묘군 유적



〈그림 12〉 시지동 1지구 지석묘군 유적



〈그림 13〉 경산 대학리 구획 지석묘

